



## 여성 인력 강화의 보편적 진리

(아메르스포르트<네덜란드> 6월 11일 AsiaNet=연합뉴스)

### 오이코크레딧(Oikocredit), 여성 인력강화에 관한 국제적 연구의 1차 결과 발표

오이코크레딧으로서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생활에 공정한 금융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4개국(불가리아, 케냐, 페루, 필리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적 연구의 1단계에서 오이코크레딧은 공정한 금융지원과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개념을 조사했다.

멀티미디어 보도자료는 <http://www.prnewswire.com/mnr/oikocredit/38715/참조>.

우리는 심층 면접을 활용해 여성 인력강화가 소액금융(microfinance)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 보았다. 여성의 역량강화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이었다. 그것은 선진국들의 개념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기업인들에 해당되는 것인가?

여성의 인력강화와 지위향상은 오이코크레딧이 사회적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이다. 우리는 교육, 건강, 일반가사 등 생활수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소액금융의 영향을 알고자 했다.

오이코크레딧의 Shobha Arole 이사회 의장은 이 연구가 현장 활동을 통해 오이코크레딧이 여성 인력강화에 확실히 기여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Arole 박사는 "기본적인 교육, 경제, 재산권에 대한 접근의 미비는 곧 전세계 빈민의 70%가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 당하고, 폭력에 희생되며,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보적인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오이코크레딧은 여성 인력강화가 개인, 가정 및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가난을 덜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역량도 강화될 수 있게 된다. 크레딧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게 자신감, 수완,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네덜란드의 Bert Koenders 개발장관은 여성 인력강화가 개발의 핵심이라면서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의 권리는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보강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의 경제적 수완과 자질을 활용하면 우리가 장기적 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고 남녀 간의 평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오이코크레딧이) 같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오이코크레딧의 여성 인력강화에 관한 연구의 1단계 결론은 당신의 출신이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성 인력강화는 공정한 금융의 중요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액금융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여성의 인력강화를 "선택하고 자립하며 소액금융의 이용으로 촉진되는 여성 능력의 발전"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것은 역동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보편성있는 사회, 경제적 정의를 보완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전세계가 경제적 회의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때에, 가난을 줄이고 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소액금융의 현실적 역할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 인력강화에 관한 연구 결과는 7백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11일 개최될 "여성 인력강화 - 오이코크레딧의 경험"을 주제로 하는 오이코크레딧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추가적인 사례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 중요한 사실과 통계

- 세계의 빈곤 인구는 14억 명이다(세계은행 2008년 통계).
- 전세계에서 3,552개 소액금융(microfinance) 기관을 이용한 고객이 154,825,825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 이들 고객 가운데 83.4 % 즉, 88,726,893이 여성이다.\*
- 세계에서 약 30억 명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 수입이 있는 여성들은 주거, 위생시설, 보건 서비스, 교육, 영양식품 등을 제공해 가족과 공동체를 지원한다.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2009,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료제공: Oikocredit  
(끝)